

조국 첫 당정협의...與 존재감 압박 vs 野 “조국 결론은 파국”

민주, 당정협의 열고 ‘피의사실 공표 제한’ 조국 가족 수사 후 적용

한국, 오늘도 靑 앞서 이주영·심재철 삭발 투쟁...공세수위 높여

조국 법무부 장관을 파면을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은 18일 조 장관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존재감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당정은 피의사실 공표 개선 방안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의 시대, 윤석열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일부에선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저와 무관하고 이미 추진하는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하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제 임명이 완료돼 일하

려고 하는데 조 장관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야당이 조 장관 가족 논란을 정쟁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켰는데 이런 소모적 행동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피의사실 공표 제한에 대해선 “전임 박상기 장관 때부터 많은 방안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 장관이 이를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의장과 심재철 전 국회의장의 ‘삭발’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조국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심재철(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대 광장에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어디까지 국정을 파탄으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

라며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이나 내일(19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국의 법무장관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수사를 받는 가당치 않은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 희롱이다. 또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

고 비판했다. 그는 당정협의에 대해서 “(조 장관이) 가족은 물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다소 뒤로 머물렀다고 한다”며 “본인들이 조국 사태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창당 64주년’ 맞은 민주당... “정권 뺏기면 절대 안 되겠다”

“내년 총선 승리가 시급한 과제” “사회적 패권 바꿔 새로운 역사의 장 열어야”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창당 64주년을 맞아 내년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창당 64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1955년 해공

신익희 선생이 창당한 민주당을 뿌리로 정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선정된 2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 승리가 당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모든 당원들이 일치단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민의정부·참여정부 10년을 했지만, 정권을 뺏기고 나서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노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정권을 뺏기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새삼 각오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시급하다. 모든 당원들이 일치단결해 함께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민생·혁신·단결이라는 세 가지 기본을 잘해나간다면 국민들로부터 내년 총선에서 다시 압도적인 승리

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 사회에서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패권을 바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우리가 다시 열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길에 당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지금 국회의 모습 보면서 국민들께선 정치가, 그중에서도 국회가 바뀌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회를 바꾸려면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승리하는 2020년을 만들자”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상임고문인 추미애 전 대표도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를 통한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자리에서 되새긴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반조국연대’ 놓고 깊어지는 바른미래당 내홍

당권파, ‘반조국연대’ 해당 행위 vs 퇴진파, 손학규 퇴진

자유한국당이 ‘반조국연대’로 보수통합을 추진하자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반조국연대’에 대해 당 분열을 가속화하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고, 퇴진파는 이같이 비판하는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손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기회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 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당을 분열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퇴진파 의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불가하다고 한다던 전향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물지마시’ 당 대표 퇴진 주장을 거두고 대

동단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퇴진파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손 대표의 리더십이 붕괴돼 있는 상태”라며 손 대표가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를 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사퇴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퇴진파인 장병국 의원도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손 대표는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사퇴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제 약속의 시간이 다했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싸움에 바른미래당이 결연히 참전할 수 있도록 사퇴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필보험료 납부 104,062원 /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급여	고소득층	중산층	3분위	2분위	1분위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금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칙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임박해 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약속해주세요